

# 1950~1960年代 濟州地域 住宅特徵에 관한 基礎的인 研究

## A Basic Study on Characters of Housing of 1950s and 1960sin in Jeju

김 호 선\*      김 태 일\*\*      정 별 아\*\*\*

Kim, Ho-sun      Kim, Tae-Il      Jung, Byul-A

### ABSTRACT

Residence is very related with society and culture and human living. Without exception, housing in Jeju has been changed by natural, social and cultural factors. Development in Jeju was started on May 1961 and era of 1950s and 1960s was period of confusion and same time period toward modernization. In this during of social confusion and modernization, various house were built in Jeju.

But unfortunately study with regards to house of 1950s and 1960s has not been proceeded and also its data were not enough to study.

This study is based to analyze house type and spacial trait with social change during 1950s and 1960s.

This study, for searching what kinds of house were built and what's trait, depended on basic data like 「Jeju-do」 published by Jeju Province, newspaper's articles and Korean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And also measured the existing houses and heard more exact explanation from the resident.

Although roof type and wall material was modernized, most of houses seems to be built on traditional house plan of Jeju. It is necessary for more exact study to get more data. And also preservation of existing houses is proposed

**Key words** : Residence, social change, house trait, modernization, 4·3 matter, sufferer, return-supporting house

### I. 서론

\*    정회원, 제주대학교 시설과 공학석사

\*\*   정회원, 제주대 건축공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제주대 건축공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주거는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인 산물인 동시에 인간생활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시대의 사회변화 및 생활양식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진다.

제주지역의 주거건축에 있어서도 모든 다른 건축물에 있어서처럼 제주도의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받아 오면서 변화되어 왔다.

1945년 해방이후의 제주는 1946년 행정자치구역인 道로 승격되었다. 이후 50년대까지는 예산의 취약, 행정기구의 미비, 좌·우 파의 대립, 4·3항쟁의 발발, 4·3사건에 따른 이재민과 6·25사변으로 제주도로 피난 온 난민들과 매년 연이은 흉작으로 인해 사회 혼란이 계속 되었다.

본격적인 제주의 근대화는 1961년 5·16군사정권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60년대의 개발은 5·16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제주도에 최초로 아스팔트 도로가 건설되고,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었으며, 이것은 1970년대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제주개발을 두고 물의 혁명, 길의 혁명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하였다.

제주지역에서의 1950년대와 1960년대는 혼란의 시기였으며 동시에 근대화로 이행해 가는 변혁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의 변화과정에서 다양한 주택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4·3사건, 6·25사변과 같은 큰 사회변동 이후의 주거건축의 변화에 관한 조사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관련자료도 미비하거나 정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주거건축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나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사회적 변화와 함께 근대화로 넘어가는 시기의 주택형태 및 공간적 특징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음 단계의 연구를 위한 자료정리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 II. 연구의 방법 및 자료수집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각 시대별 사회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주택에 대해 그 당시의 제주도의 간행물 「제주도」, 신문, 대한주택공사 관련자료 등을 통한 기초적인 문헌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아울러 현존하는 건축물에 대한 실측 조사와 현주민들로부터의 증언 등을 토대로 주택의 형태 및 공간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 III. 혼란기의 1950년대 주거양식

### (1) 난민주택

1950년에 발발한 6·25사변으로 전쟁의 위험이 없었던 제주에 많은 피난민이 유입하였다. 피난민들은 제주항, 성산항, 한림항을 통하여 제주도로 들어와<sup>1)</sup> 각 지역

으로 흩어져 피난생활을 시작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피난민을 위한 「난민귀농정착사업」을 1955년도 시작하여 1959년에 종료되어 5년 동안 실시되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전쟁으로 인한 난민뿐만 아니라, 4·3사건 등으로 인한 난민을 포함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제주도가 계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sup>2)</sup>.

봉개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였던 임 홍중씨는 난민 주택에는 육지에서 피난온 사람들이 대부분 거주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있다.

난민들의 정착을 위해 우선 주택을 제공하였는데, 지역상황에 따라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건축하였다. 이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남아 있지 않으나, 현재 봉개동 일대에 일부 남아 있는 주택이 주택형태와 내부공간을 고려한다면, 도시형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 난민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2세대가 거주하는 형태이지만 합벽을 중심으로 돌담으로 외부와 경계를 구분하면서 독특한 형태의 주택이다. 각 세대별 별도의 출입구를 가지고 있으며 화장실은 외부에 두었다(그림.1, 그림.2)



그림1. 1주택2가구형태의 난민주택의 외관 (봉개동 소재,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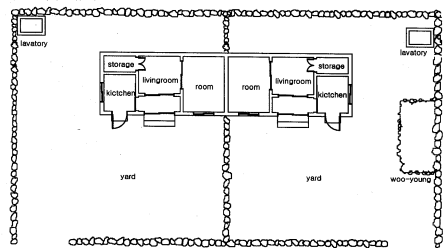


그림2. 난민주택의 평면(봉개동 소재, 1959)

또한, 각 세대는 독립된 마당과 우영 밭을 가지고 있는 등 외부 공간은 기본적으로 제주의 주거공간을 답습하면서도 주택내부공간과 지붕형태, 마감재료 등에 있어서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현대적인 주택이라고 할 수 있었다.

## (2)후생주택(재건주택)

6·25사변 발발 후,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1953년부터 정부는 주택이 파괴되고, 또한 월남한 피난민들이 증가하여 심각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주택건설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당시 주택건설은 지금의 행정자치부에 해당하는 사회부가 주관하였는

데,UNKRA(United Nation Korean Reconstruction Agency)<sup>3)</sup>의 원조를 받아 경인 지역에 2,500호 전국 각도에 3,000호의 후생주택을 건설하였는데, 일명 재건주택(再建住宅)으로도 불렸다. 제주도에서도 몰려온 피난민을 위해 후생주택을 건설하였다. 대한주택공사의 자료20년사를 보면, 9평 규모가 건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삼도1동에 남아 있는 후생주택(그림.3)을 조사한 결과 9평과 18평 2종류가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 18평의 평면은 마루를 중심으로 방(3개)과 부엌(1개), 다용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화장실을 주택내부에 두고, 또한 화장실을 거쳐 욕실로 들어가는 상당히 서구식 평면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림.4). 그러나, 화장실이 채래식이어서 냄새가 나고 제주실정에 적합하지 않아 평면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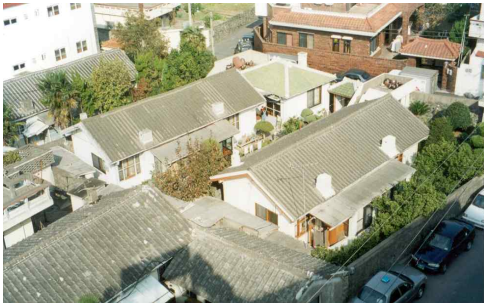


그림3. 후생주택의 외관(삼도1동,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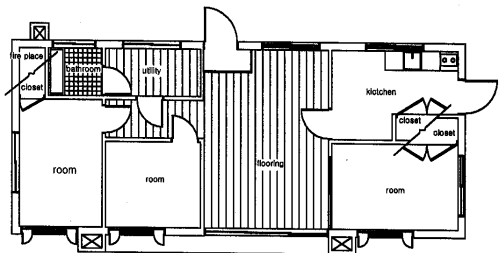


그림4. 후생주택의 평면(18평)

구조는 흙을 구워 만든 블록<sup>5)</sup>을 쌓아 벽체를 구성하여 그 위에 회바름으로 마감하였다.

후생주택 건설은 대한주택공사가 직접 건설하기도 하였고, UNKRA로부터 건축자재를 제공받아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휴전협정 체결 후의 혼란한 시기였고,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였기 때문에 주택건설에 있어서 불상사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건축자재는 지방 구호위원회에서 배급하였는데, 피난민에 대한 건축자재 배급에 있어서 2만원의 보증금과 지방유지의 보증을 요구하는 등 피난민들로서는 불가능한 조건이어서 많은 불만이 있었으며<sup>6)</sup>, 대부분 유지들이 입주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후생주택을 건축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 입주자<sup>7)</sup>의 증언과도 일치하였다.

#### IV.안정기의 1960년대의 주거양식

##### (1) 4·3 이재민 복귀주택

1960년이 들어서면서, 사회가 안정되고 혁명정부도 지역현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4·3사건 해결이었다. 이전까지는 일부 산사람들의 소탕 등의 이유로 원주민 복귀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건축자재의 제공이나 일부개조에 의한 입주형태의 복귀가 이루어 졌던 것으로 보인다<sup>8)</sup>.

혁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주지 복귀 사업」을 실시하여, 1948년 4·3사건으로 인하여 재화를 만난 중산간 지대 산재부락 주민들에게 잃었던 옛 농토에 집을 지어주고 당분간의 생활비까지 지원하여 소개령에 의한 장기간의 물적 심적 피해를 보상하려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몇 호를 건설하였는가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당시의 신문기사<sup>9)</sup>를 토대로 1차 사업에서의 주택 건설지 분포를 작성하여 보았다(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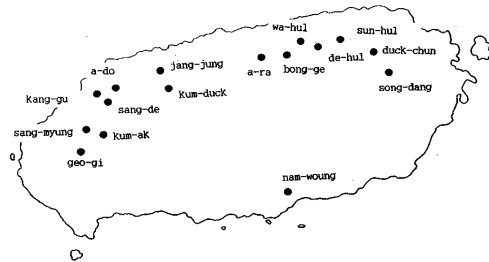


그림5. 4·3 원주민 복귀주택의  
건설지분포

산북의 중산간 지역에 집중되었다. 2차 사업에서도 800세대 건설의 분배에 있어서도 제주시 190호, 북제주군 320호, 남제주군 290호가 배정된 것으로 보아 상당수가 산북 지역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의 지원내용을 보면<sup>10)</sup>, 식량뿐만 아니라, 주택, 개간농지, 가축, 농사자금까지 지원하였는데, 주택의 경우는 1호당 25,000원(제2차 사업에서는 40,000원)을 지원하였는데, 그 당시 도민 1인당 소득이 30,658원(1965년 기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을 두고 「한라산 횡단도로 포장공사」와 더불어 혁명정부가 보여준 2대 영단(英斷)이라고 까지 표현하였으며<sup>11)</sup>한경면 저지리에서 가진 첫 입주식(그림.6)<sup>12)</sup>에는 장관을 비롯하여 정부요직들이 참석하는 등, 주민의 지지와 협조, 그리고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하여야 했던 혁명정부차원에서는 제주지역의 큰 아픔으로 남아 있던 4·3사건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려 하였던 점이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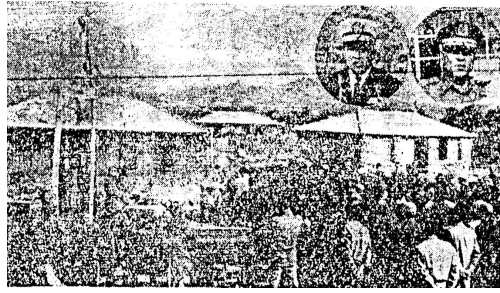


그림6. 한경면 저지리에서 거행된 첫 입주식 광경

당시 신문에 게재된 입주식 사진의 주택형태(그림.6)와 비교해 볼 때, 봉개동 등 일부지역의 4·3 이재민 복귀주택은 거의 원형으로 판단되는데, 외부는 제주의 현무암으로 벽을 쌓고 목구조 양식의 트러스에 함석지붕이었으나, 현재는 함석 지붕 위에 스테이트로 지붕 개량되어 있으며, 내부 공간구성은 마루를 중심으로 방과 부엌이 놓아 기본적으로 제주 전통주거형식인 초가의 평면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택의 규모는 보통 9~12평으로 되어있다(그림.7, 그림.8).



그림7. 4·3 원주민 복귀주택의 외관(봉개동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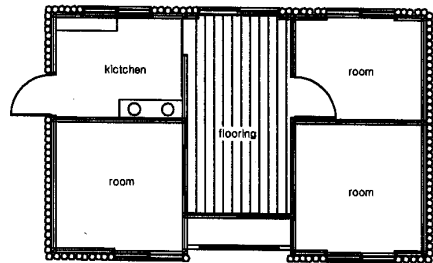


그림8. 4·3 원주민 복귀주택의 평면

## (2)삼안식(三安式)주택

공공기관에 의한 주택공급 이외에 개인에 의한 주택이 건축되기도 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당시 제주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던 매그린치 신부(이시돌성당)에 의하여 건축되었던 삼안식(三安式)주택이다. 삼안식(三安式)주택<sup>13)</sup>은 이시도례식 주택이라고도 불리워졌는데, 건설된 주택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 같으며, 현재 이시돌 목장에 몇 호 남아있다.

삼안식 주택의 구조는 물결모양의 아치가 연속된 형태의 셸 지붕으로, 내부에 기

둥이 없어 넓은 평면을 구성할 수 있어서 주택뿐 만 아니라, 군용 막사, 교회 등에 사용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1962년에 저렴한 주택의 대량건설을 위하여 건축자재의 규격화 방안과 조립식주택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삼안식 주택(B형 주택으로 명칭)이었다(그림.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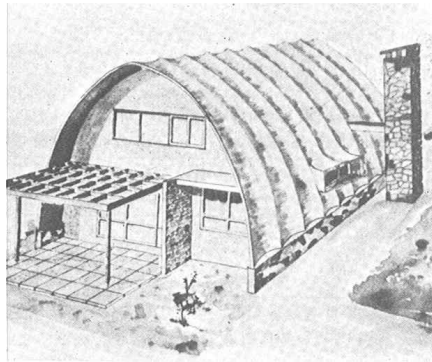


그림9. 주택공사가 검토하였던 삼안식주택

그러나, 삼안식 주택은 각재 및 평철을 기본구조로 하였으며, 합판대신 삼베나 가마니 등으로 거꾸집을 만들어 구조체를 제작하기 때문에 공법이 간단하고 특수기능공이 필요 없고 목재가 절약되는 장점이 있으나, 균열이 발생하기 쉽고, 단열이 되지 않으며 곡면으로 인하여 창문 위치가 제한되어 채광과 환기면적이 적은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도입 개발되지 못하였다.<sup>14)</sup>

현재 남아 있는 삼안식 주택의 평면구조를 보면, 1세대용 주택과 2세대용 주택, 2종류가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아 있는 주택과 대한주택공사20년사의 자료를 보면 건축물의 측면 즉 단변 방향으로 출입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이시돌 목장에 남아 있는 텍스트하우스의 외관과 평면을 보면 건축물의 장변 방향으로 출입하게 되어 있어 여건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보인다(그림.10).



그림10. 1세대용 삼안식주택 외관(이  
시돌 소재)

1세대용 주택은 방 3개와 부엌이 있고 현관 홀을 중심으로 각 방에 직접 진입하도록 되어 있다(그림.11). 2세대용 주택은 방 1개와 부엌, 그리고 거실 겸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면구조로 되어 있다(그림.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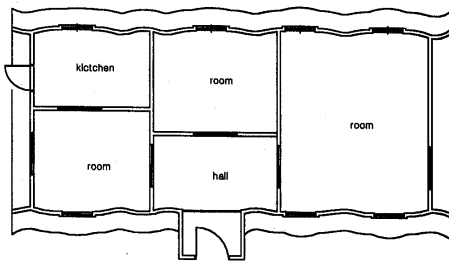


그림11. 1세대용 삼안식주택의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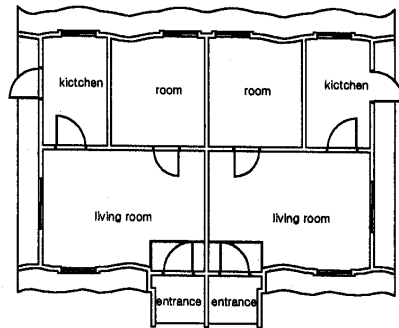


그림12. 2세대용 삼안식주택 평면

## V.결론

혼란의 시기였으며 동시에 근대화로 이행해 가는 변혁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는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제주의 현대사에 있어서 잊혀진 시기였는지 모른다. 그 당시의 사회의 모습과 주택에 대한 기록이나 연구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미약하나마 50년대와 60년대의 사회변화 과정 속에서 발생한 주택들의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근대 주택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자료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시기의 주택들은 대부분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주택이었으며, 주택

의 형태와 재료들은 현대적인 주택이었다. 평면구조를 보면 나름대로 제주의 실정에 맞게 건축된 것들이었다.

본 연구는 기존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들 주택에 대한 다양한 자료수집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주택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평가하여 보존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대한주택공사, 1979, 대한주택공사 20년사,
- 2) 제주도, 1997, 제주실록
- 3) 제주신보, 1954.1.26
- 4) 제주신보 1954.3.28
- 5) 제주신보, 1959.4.4
- 6) 제주신보 1962.6.10
- 7) 제주신보 1963.1.18
- 8) 제주도, 1963, 제주도 제9호, p57~58
- 9) The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1953.

## 부록

- 1) 도백열전(26)의 기록에 의하면 7월중에 약 1만명의 피난민이 유입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의 제주 인구가 28만명으로 상당한 피난민 숫자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1997), 제주실록, p56를 참조
- 2) 제주신보, 1959.4.4일자 신문기사 자료
- 3) 한국의 경제부흥·재건을 돕기 위해 1950년 12월 유엔총회의 결의로 창설된 원조기관으로 1958년에 해체되었다.
- 4) 후생주택건축 당시부터 생활하고 있는 이 성주(75세)의 증언
- 5) 연와조(煉瓦造)라 부르며, 일종의 조적식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주택공사의 자료에 의하며, 그 당시 사용된 흙벽돌은 흙(白土)과 시멘트 혹은 석탄을 혼합 압축하여 제작하였다.(대한주택공사(1979), 대한주택공사 20년사, p208)
- 6) 제주신보 1954.3.28일자 신문기사 자료
- 7) 이 성주(75세)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후생주택을 건축할 당시, 20년 상환 조건으로 180만원을 지원 받아 건축하였다고 한다.
- 8) 제주신보, 1954.1.26자 기사에 의하면 造水里 朱池洞에서 첫 역사적인 원주지 입주식이 있었다.
- 9) 제주신보 1962.6.10 및 1963.1.18

10)제주도(1963), 제주도 제9호, pp57~58

11)도 행정간행물 「제주도」의 자료에 의하면, 이재민중 원주지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4365세대(총 18,000명)의 이재민들을 위해서 복귀 2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1962년 9월에 남원면 하례리에서 복귀주택 기공식을 올렸고, 이어서 1963년도에는 우선 제1차 사업으로서 800호의 복귀를 보게되었다. 제2차사업은 816호로 4월3일 조천면 와흘리에서 제2차 복귀주택 기공식을 가졌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1963), 제주도 제9호, pp57~58를 참조.

12)제주신보 1962.11.13당시의 기사에 의하면, 역사적인 첫 입주식은 1962.11.11에 한경면 저지리 명이동(12호 건립)에서 가졌다.

13)대한주택공사(1979),대한주택공사20년사, p362.

14)대한주택공사(1979), 대한주택공사 20년사, p364